

광주 무등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가 보니

학원보다 더 실속있게 '집같은 학교'서 '즐공'해요

(즐거운 공부)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은 부모들에게 굉장한 걱정거리다. '나홀로 집에'를 피하려면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오후 1시 30분부터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5~6시간을 학원에서 보내야 한다. 그러자면 최소한 3~4개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저소득층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들의 이같은 고민을 덜기 위해 학교가 나섰다.

광주시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4개 학교이며, 28곳은 보육실 마련을 위해 공사 중이다. 올해 안에 광주시내 135개 초등학교 중 31%인 42개 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008년까지 전체의 80%까지 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도입 첫 해부터 2년제 운영 중인 광주시 북구 우산동 무등초등학교를 찾았다.

지난 26일 오후 2시 무등초등학교 1층에 위치한 '어깨동무교실'.

15명의 저학년 학생들이 '어깨반', '동무반'으로 나뉘어 선생님과 함께 도형을 이용한 창의수학과 종이접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일반 교실 2개 크기의 보육실은 지난해 4천여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컴퓨터방, 시청각방은 물론 샤워실을 갖춘 세면장과 쉴 수 있는 온돌방까지 있어 '학교 속 작은 집'을 연상케 했다. 집에 돌아가도 돌봐줄 이가 없는 아이들로서는 이 곳이 제 2의 집인 것이다.

현재 무등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30명. 대부분 저소득층 아이들과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다. 기용주 연구부장은 "자칫 아이들이 보육프로그램을 못 사는 애들만 받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적정 비율은 굉장

히 중요하다"며 "어렵게 사는 애들만 모이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던 아이들도 막상 생활해보면 뒤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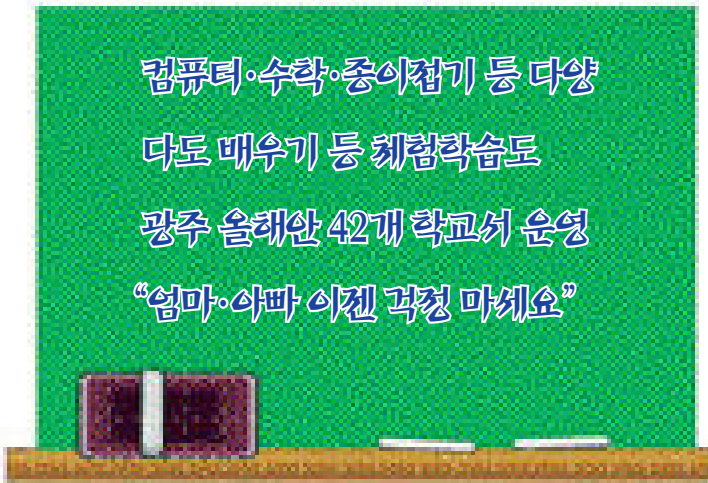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교사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숙제를 하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간식비(하루 1천원 가량)를 제외하곤 무료로 운영된다. 무등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 수업이 끝나는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요일 별로 일정이 짜여져 있다. 부모로서는 여러가지로 안심이 될 만 하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한글공부, 컴퓨터, 수학, 독서, 시청각, 단소, 만들기 등. 전문적인 교육 기법이 필요한 과목의 경우 외부 강사를 초빙해 운영한다. 2개월에 1번 정도는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오기도 한다. 올 1학기 때는 나주 목장 체험, 담양 다도 체험, 광주항교 등을 다녀왔다.

이번 달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김민성군은 "전에는 집에 가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어 심심하지 않아 좋다"고 말했다. 2학년 이은정양은 "종이접기와 단소 시간이 제일 재미있다"며 "엄마에게 그날 그날 배웠던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보육교실 담당 교사 안미경씨는 "학생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빠지는 아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며 "학생 간 개인차가 발생하면 개별지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교사 수로는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또 "제도 시행 초기여서 그런지 교사 1명 당 학생 수 등 전반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강아지 똥' 삽화 작가 정승각씨 초청 강연회

오늘 무등도서관

무등도서관 (관장 조영추)은 2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동화작가 정승각씨를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정씨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필독서로 알려진 '강아지똥'(갈벗어린이 펴냄·권정생 지음·사진)의 삽화를 그린 유명 작가로, '까막나라에서 온 삽사리', '오소리네집 꽃밭' 등의 작품에서 우리 고유의 색깔과 정서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씨는 '보고, 그리고 상상하다'(부제 : 오감을 깨우는 그림놀이)를 주제로 전통 그림의 맥을 되살려 동심을 표현하는 자신의 작업세계를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2-264-9857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무등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글쓰기(위)와 단소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과학교실' 학생 모집

광주시과학교육원

광주시과학교육원은 29일까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006 과학교실' 참가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 내외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부모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 예비소집은 29일 오후 5시 광주시과학교육원 상설실험교실에서 실시된다.

다음달 9일부터 11월3일까지 20일 동안 하루 2시간(오후 5~7시)씩 모두 40시간으로 이뤄지는 이번 과학교실에서는 과학탐구 실험과 현장 체험 학습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문의 062-230-3551, 3561

현대인의 웰빙식품 오디 녹산오디

녹산오디 원액 (1호, 2호, 3호) 4호 녹산오디 팩 (30포, 60포, 100포)

(1호) 120,000원	(2호) 90,000원	(3호) 100,000원	30포 45,000원	60포 90,000원	100포 150,000원
---------------	--------------	---------------	-------------	-------------	---------------

녹산오디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 오디의 성분: 오디에는 포도당, 과당, 칼슘, 철분, 칼륨, 미그네슘, 아연, 비타민 A, B1,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과일중의 황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오디에는 **성분이 다른 과일에 비해 4~5배이상 칼슘은 말기호 2배이상**, 그밖에 미그네슘, 아연, 비타민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 들어 있다. 그리고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의 함량도 다른 과일에 비해 2~3배 높고, 아연이 풍부하여 면역력이 높여준다. 오디에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영양소 결핍이 생장기 어린이의 발육 지연이나 미각장애에도 영향을 준다고 요즘 주목받고 있다.
- 오디는 노화진행 지연, 암을 성인병에 도움: 오디가 사람을 총명하게 해준다는 기록도 있다. 술로 만들어 먹으면 수기(水氣)를 이롭게 해주고, 종기등을 가라앉혀 준다. 또 다른 기록(본초집경, 本草綱目)에는 '오디 껍데기 익은 것 1되에 좋은 술 3되를 넣고 3일 2~3근을 넣어 저온후 35일이 지나면 마신다'고 했다.
- 오디 100g 중의 성분:
 - 칼슘 39.6mg · 마그네슘 19.7mg · 비타민 B2 0.05mg · 철 1.59mg · 아연 1.39mg
 - 비타민 B6 74mg · 칼륨 234mg · 비타민 B1 0.04mg · 비타민 C 33mg

* 모든 제품은 방부제나 첨가물이나 화학약품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필히 냉장보관 하여 드십시오.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클릭한방으로 www.hanboGAGU.com

NAVER 에 **한보가구** 를 쳐보세요

한보가구 (062)225-5100

30 장인정신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torch 光州總판

www.torch.co.kr

최고의 품질! 최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

정부조달물자 공급업체
관공서·정부투자기관·학교·금융기관·기타
조달등록 79중

GOOD DESIGN

한보가구 광주총판전시장 (062)225-5100

MAN pride

"당신의 중심이 살아납니다"

中心의力

세계가 인정하는 男性 의료기기-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의료기기!!

3분이면 수술이나 약없이 우뚝! 발기부전·조루증·작아서 고민·약한오줌뿔

한국최초 혈류충진기 미국 FDA인증 획득!

■ 의료기기 취급업체 등록번호 9088839호
■ 의료기기 등록번호 E423268호

V.S.T 맨프라이드 고객상담실
080-333-3292
www.manpride.co.kr